남의 모양을 흉내 내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⑭ 평상심

"대덕들이여, 시간을 아껴야 한다. 옆길로 빠져 바쁘게 돌아다니며 선을 배운다, 도를 배운다, 하면서 명구(名句)를 가지고 아는 척하며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거나 선지식을 찾아 그 뜻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단지 그대들에게 부모는 하나뿐이다. 다시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그대들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보아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연야달다(演若達多)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아 헤맸지만,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쉬었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 고 하지 않았던가?

대덕들이여, 무엇보다 평상심이 중요하니 남의 모양을 흉내 내지 말라. 좋고 나쁨도 구별하지 못하는 머리 깎은 노예 같은 무리들이 있어 곧잘 나는 신을 보았다거나 귀신을 보았다면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가리키면서 맑은 날이 좋다 비오는 날이 좋다 하나니 이런 무리들은 모두 빚을 지고 반드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들 여우나 도깨비 같은 무리들에게 홀려 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눈먼 중생들이여, 시주 밥 값아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선을 주체적인 자아확립을 위한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견성(見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철저한 자기 탐구라고 말할 수 있다. 〈임제록〉을 읽으면 이러한 자기 확인에 대한 경책의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내면을 반조(返照)하라고 일러준다. 반조란 보통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사자성어로 말하는데 외부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고요히 자신의 심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육근(六根)의 창밖에 전개되는 것을 내다보지 말고 시선을 거두어 보고 듣는 성품을 관하라는 말이다. 옛 선시(禪詩)에 "청산은 티끌 밖의 모습이요 명월은 선정 안에 있는 마음이네. 꽃을 보고 색의 공함을 깨닫고 새소리를 듣고는 듣는 성품을 밝힌다.(靑山塵外相 明月定中心 看花悟色空 聽鳥明聞性)"고 하였다.

연야달다(演若達多)는 〈능엄경〉 4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 광기(狂氣)가 발동 자기 얼굴이 없어졌다 하고 얼굴을 찾아 실라벌성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다. 그리하여 미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평상(平常)은 광기가 쉰 상태를 말한다. 연야달다의 광기가 쉬면 평상이다. 머리는 본래 없어졌던 것이 아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홀연히 광기가 발동한 것이다. 보통 평상심이라 하면서 이것이 도(道)라고 하였다.

어느 날 조주 선사가 스승인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대답했다.

"평상심이 도이니라."

대화는 계속된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잡을 수 없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도' 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도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생각으로 아는 것이라 하면 그건 망상이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면 자각이 없는 것이다. 안다든가 알지 못한다든가 하는 분별을 없애면 바로 거기서 도가 나타난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道不屬知不知(도불속지불지)' 다. 도는 아는 데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남의 모양 흉내 내지 말라."는 것은 선의 절대 독립을 강조하는 말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코 모방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남을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런 말도 전해진다.

"장부에게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으니 여래가 간 곳을 따라가지 말라.(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

〈조계종 고시원장〉

"佛心 염함이 붓다, 妄 염함이 범부"



세상 속 경전읽기

⑭ 도신(道信) 대사의 일행삼매

중국 선종에서 보리달마를 초조(初祖)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돈황 발굴문서인, 정각(淨覺)이 지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는,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를 초조로 보리달마를 2조로 묘사하고 있다. 구나발다라가 번역한 4권 〈능가경(楞伽阿跋多羅寶經 (T0670)〉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능가종(楞伽宗)의 능가사(楞伽師) 2조가 보리달마인 셈이다. 따라서 〈능가사자기〉에 의하면, 선종 3조 승찬은 능가종 4조, 4조 도신은 능가종 5조, 5조 홍인은 능가종 6조, 6조 신수(神秀)는 능가종 7조가 되고, 능가종 8조는 보적(普寂) · 경현(敬賢) · 의복(義福) · 혜복(惠福) 등을 들고 있다. 6조 혜능은 능가종 6조 홍인의 제자로 신수와 사형제이니 능가종 7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6조 혜능 대사의 일행삼매(一行三昧)는 4조 도신(道信) 대사의 일행삼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능가사자기〉의 제5 도신장(章)에는 기주(蘄州) 쌍봉산의 도신선사가 승찬의 뒤를 이어 선문(禪門)을 다시 크게 열어 천하에 유포했다고 한다, 저서로 〈보살계법(菩薩戒法)〉 1본(一本)이 있고,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을 지어 인연 있고 근기가 익은 이에게 설하였다.

"나의 이 법요(法要)는 〈능가경(楞伽經)〉에서 말한 '제불(諸佛)의 심(心)이 제일이다.' 고 한 법문에 의거하며, 또한 〈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의 '일행삼매' 에 의거한다. 즉 불심(佛心)을 염(念)함이 붓다이고, 망(妄)을 염함이 범부이다." [說我此法。要依楞伽經。諸佛心第一。又依文殊說般若經。一行三昧。即念佛心是佛。妄念是凡夫]

〈楞伽師資記T2837_.85.1286c22-c24〉

또 이어서 설하기를 "일행삼매는 법계 곧 일상에 합치하는 것이고, 일행삼매에 들려면 반야바라밀을 먼저 듣고 배워서, 고요한 곳에서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모습도 취하지 말고, 마음을 일불(一佛)에 모아 오로지 염념상속으로 염불해서 일체종지와 일체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문수설반야경〉에 설하였다. 문수사리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행삼매라 하나이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법계[法界, 성스러운 현상을 내는 원인이며 바탕인 진여, 또는 모든 현상과 사물]는 일상[一相, 모든 현상의 차별도 대립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평등한 모습]이니, (그러한) 법계에 계연[繫緣, 합일, 합치]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그 반야바라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운 연후에야, 능히 일행삼매에 들어가 법계에 그대로 합치하여, 후퇴도 물러남도 없고 또는 파괴함도 없고, 부사의하고 걸림도 없고 또는 상이 없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일행삼매를 정작 공부하려고 할 때는, 시끄러운 인연이 없는 한가한 곳에서 모든 산란한 생각을 버리고, 상을 취하지 않고 마음을 일불(一佛)에 매어 두고 오로지 (붓다의) 명호(名號)를 외어야 한다. 붓다가 계신 방소(方所)에 따라 단정히 바로 향하고 앉아, 일불(一佛)에 대해 생각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에는 즉시 그 생각 가운데 능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제불을 다 본다. 왜냐하면 일불(一佛)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생각하면, 바로 무량한 부처님 공덕을 다 감견(感見)하여 제불공덕과 둘이 아니고, 부사의한 불법(佛法) 등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두 일여[一如, 차별 없이 평등함]이므로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고, 한량 없는 공덕과 한량 없는 변재(辯才)를 모두 갖추느니라. 이와 같이 일행삼매에 들어간 이는 항하사(恒河沙) 제불법계의 무차별한 모습을 모두 다 아느니라."

〈文殊說般若經 T0232_.08.0731a24-b09〉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⑩ 이해의 길 40

원불교는 불교인가?

지난해 불교계에서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원불교가 제3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1950년 5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 세계 불교도들의 단결과 우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스리랑카 콜롬보에 27개국이 모였는데, 현재는 37개의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계종을 비롯하여 진각종, 원불교 등 7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원불교도 이 단체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불교는 불교란 말인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원불교가 WFB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불교는 불교 종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원불교는 불교인가, 아닌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원불교가 국내에서는 독립적인 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불교의 한 종파로 인식되고 있다. 영어식 표현인 'Won-Buddhism' 만 보더라도 누구든 아무런 의심 없이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정체성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원불교가 불교의 한 종파라고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원불교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교조인 박중빈(朴重彬, 1891-1943) 대종사는 본래 원불교가 아니라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글자 그대로 붓다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모임이란 뜻이다. 그들이 '원불교' 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종사가 열반한 이후의 일이다. 원불교는 1967년 대한불교총연합회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서 언급한 WFB 원불교지부도 설립하였다. 명실상부한 불교의 한 종파였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원불교는 연합회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4대 종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흔히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로 교주, 교리, 교단 3가지를 들고 있다. 불교의 경우 붓다(佛)와 가르침(法), 승가(僧) 삼보(三寶)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조계종이나 화엄종, 천태종, 진각종 할 것 없이 모든 종파가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이다. 비록 각 종파의 창시자, 즉 종조(宗祖)는 다르더라도 교주(敎主)는 붓다 한 분이다. 예컨대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종조는 도의국사(道義國師)지만, 교주는 석가모니다. 원불교도 불교의 한 종파로서 소태산 대종사를 종조로 삼고 붓다를 교주로 삼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불교는 이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원불교가 불교의 한 종파로 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4대 종교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9년 불교계에서 원불교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복귀를 강하게 원했지만, 그들이 수용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었다. 이제 원불교는 외형적으로 불교와는 다른 종교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의 WFB 총회 개최는 마치 뿌리가 같다고 해서 천주교 국제행사를 개신교에서 여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찌 보면 원불교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원(圓)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는 불교이면서,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불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교와 다르다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는 화엄불교와 천태불교, 유식불교의 차이처럼 본질적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이다. 원(圓)과 화엄, 천태라는 차이를 갖고 있지만 불교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태, 화엄, 유식은 정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처럼 모양이 다르더라도 삼각형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원불교만 사각형으로 불리는 형국이다.

원불교가 불교와는 본질이 다른 소태산 대종사를 교주로 하는 종교라면, 불교라는 이름 대신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종단처럼 원(圓)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와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궁금하긴 하다. 대종사라면 어느 길을 선택했을지.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